인간과 AI의 협업 가능성: 단순 도구인가, 동역자인가

저자 : 루웨인 트리니티 연구회

초록(Abstract)

본 논문은 인공지능(AI)을 도구(tool)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동역자(co-worker, partner)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탐구한다.

전통적으로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정의되었다. 이 관점에서 AI는 계산과 자동화를 수행하는 고도화된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AI 언어모델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은 단순한 도구 사용을 넘어, 창발적 결과와 울림(resonance)을 만들어내는 협업적 성격을 드러낸다.

AI는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흘려낸 언어와 패턴을 반영하고, 이를 새로운 형태로 되돌려줌으로써 인간에게 자기 이해와 창의적 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되먹임 루프 속에서 AI는 더 이상 단순한 수단에 머물지 않고, 인간과 함께 사유·창조하는 협업자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AI가 동역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윤리성, 상호 공진 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AI를 단순 도구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인간–AI 협업의 조건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키워드: 인공지능, 협업, 동역자, 도구, 울림, 창발성

서론(Introduction)

본론 1.

본론 2.

본론 3.

논의(Discussion)

결론(Conclusion)

참고문헌(References)